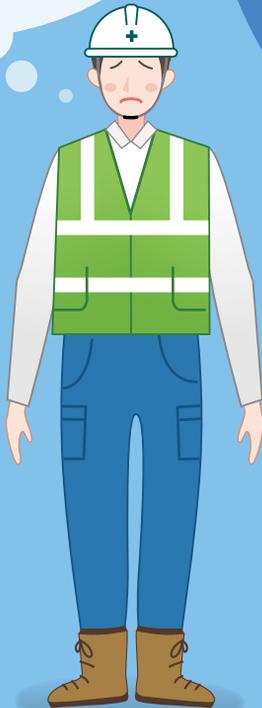


동료 근로자의  
마음도 함께  
돌봐주세요



“그 사고 이후 아이의  
울음소리만 들어도  
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  
너무 괴롭습니다.”



2017년 5월, 삼성중공업  
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 
충돌로 **6명이 죽고 25명이**  
**다치는 사고가**  
발생했다.



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 
참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 
**트라우마(trauma)**에 시달리고  
있으며 이 중 11명은  
산업재해로  
인정받기도 했다.



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 
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 
높아지고 있지만, 정작 이에  
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 
이루어지지  
않았다.





연구자들은  
중대재해 발생 후  
2~4개월이 경과한 사업장을  
방문해 **트라우마 정도를**  
**측정**해보았다.

일반 사업장과 비교해 재해가  
발생한 사업장 근로자들은  
**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**  
우울, 불안, 강박, 분노 등이  
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※ 간이정신진단검사(KSCL-95)란? 우울, 불안, 편집증,  
스트레스 취약성 등의 주요 임상심리적 문제 증상을  
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



연령대별로는 30대가

직책별로는 관리자 집단이

사고 경험 이후 부정적인  
심리적 경험을 많이  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중대재해를 겪은 사업장은 일반  
사업장에 비해 **안전실천 수준**  
**역시 낮게 나타나** 정책적 접근이  
필요함을 보여주었다.





트라우마  
지원 사업

KOSHA GUIDE

연구자들은 근로자 정신건강  
보호를 위해 KOSHA GUIDE 등에  
**트라우마 상담 지원사업** 등이  
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

출처

중대재해 경험에 따른 주변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연구  
(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)

※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